인터넷 매체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전략

—복합 양식 텍스트를 중심으로—

김성희*

<차 례>

Ⅰ. 들어가며
Ⅱ.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쓰기의 양상
Ⅲ. 읽기·쓰기의 통합 지도 전략
Ⅳ. 나가며

Ⅰ. 들어가며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는 많은 텍스트들은 복합 양식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복합 양식 텍스트'[1]이다. 시청각의 양식을 모두 가진 영상에다가 문자 양식이 결합하기도 하고, 이미지와 문자 혹은 음성이 결합하기도 한다. 최근에는 시위 현장을 실시간 영상으로 보면서 그 옆에 채팅창을 띄워놓고 채팅을 하기도 하고, 롤 플레이 게임을 즐기면서 게임 참가자들 중 일부는 음성 채팅을 하고 일부는 문자 채팅을 하기도 한다. 인터넷 기

* 동국대학교. windpia35@naver.com

1) 정현선(2005 : 101)은 매체언어 가운데에는 하나의 언어 양식으로 의미를 표상하는 '단일 양식(single-mode)'의 언어도 있지만 하나 이상의 '복합 양식(multi-mode)'의 언어도 있다고 하였다. 이를 텍스트의 논의로 확장시키면 단일 양식의 언어로 이루어진 단일 양식 텍스트도 있고, 복합 양식의 언어로 이루어진 복합 양식 텍스트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술이 발전할수록 이러한 복합 양식의 다양화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인터넷 공간에서의 소통 능력 중에는 이러한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는 기존의 책 읽기는 물론 텔레비전 텍스트 읽기나 영화 텍스트 읽기와도 다른 읽기 능력을 요구한다.

그렇다면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은 어떤 것이며 이를 교육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연구에서는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교육이 지향해야 할 바를 '다양한 언어 양식의 의미 작용 및 그 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복합적 의미 패턴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의 신장'(정현선, 2005 : 320)으로 보고 논의를 출발하고자 한다.[2] 그리고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의미 작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창의적으로 소통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밝혀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학습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복합 양식 텍스트를 어떻게 읽고 쓰는가를 관찰하고 그 양상의 특징을 찾아보고[3] 각 양상에 따라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며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학습자들의 읽기 및 쓰기 양상을 관찰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교육 현장의 적합성이 더욱 클 것이나 이를 학문적 적합성과 연계시켜 매체언어 교육이 보다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

---

2) 정혜승(2008 : 156)도 새로운 문식성을 '언어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호체계를 이해하고 조작하며 기호 작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비판하고 디자인하며 유통하는 실천적 힘'이라고 재개념화하였다. 결국 복합적인 기호 체계로 이루어진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는 점과 창의적으로 디자인 혹은 조직하는 소통 능력이라는 점에 대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3) 학습자들의 인터넷 공간에서의 읽기와 쓰기 양상은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각 2학급씩 매체언어 수업을 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하였다. 이는 졸고(2009)에 자세히 분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중에서 복합 양식 텍스트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해당 관찰 수업은 2차시로 진행되었으며 각각 읽기와 쓰기 수업으로 나누어져 있다. 읽기 양상은 주로 수업 시간 중 학습자들의 반응과 활동지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쓰기 양상은 수업 과제로 함께 분석한 학습자들의 글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학습자들은 일반계 고등학교의 2학년으로 학력수준은 전국 성취도에서 중간정도를 차지하는 학생들이다.

이 연구의 거시적 목적이라 할 수 있다.

Ⅱ.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읽기 및 쓰기 양상

1. 동시적·감각적 수용

인터넷 매체 텍스트는 다른 어떤 텍스트보다도 멀티미디어성 즉 복합 양식성의 성격이 강하게 부각된다. 복합 양식 텍스트란 하나의 텍스트가 음성, 문자, 이미지, 영상 등의 복합 언어 양식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여러 언어 양식이 하나의 텍스트를 구성하여 메시지를 전달하는 양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복합 양식의 기호 작용들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읽기 능력이 필요하다.[4] 다양한 언어 양식이 복잡하게 통합된 텍스트를 총체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기존의 읽기 방식과는 다른 읽기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먼저 인터넷 공간에서의 복합 양식 텍스트의 특성을 살펴보자.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는 복합 양식 텍스트들은 보통 세 가지 정도의 특성을 가진다. 첫째는 양식들 간의 융합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과거에도 이미지와 문자의 결합, 영상과 문자의 결합 등이 결합된 텍스트는 존재했고 그 경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그런데 인터넷 공간에서는 이러한 양식들의 통합 기술이 편리하게 제공되어 더욱 강력해진다. 둘째는 여러 언어 양식 중에서 시각 언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시각 기호로 이루어진 텍스트이다. 물론 인터넷 라디오 방송과 같이 청각 텍스트만으로 소통되

4) A. Burn & J. Leach(2004)도 mode(언어 양상)과 media(매체)가 함께 작용하면서 특정 방식으로 통합되는 것이 복합 양식의 언어(multimodeliteracy)이며 현대의 텍스트 생산자와 수용자들은 개별적인 양상을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된 형식으로도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최미숙, 2006 : 79에서 재인용).

는 경우도 있으나 상당수의 콘텐츠들은 시각 기호만으로 이루어지거나 시각 기호에 청각 기호를 수반하게 마련이다.[5] 셋째는 복제 및 재생산 경향이 강해졌다는 점이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매체 텍스트가 가지는 특성이지만 특히 복합 양식 텍스트에 사용된 이미지나 영상의 복제나 재생산의 경향이 두드러진다. 이는 유희적 소통이 빈번한 인터넷 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이미지나 영상의 재생산은 놓이는 소통 맥락에 따라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게 된다.

이처럼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는 복합 양식 텍스트는 단순히 여러 언어 양식이 결합된 텍스트라는 의미를 넘어서며, 그 소통 양상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로 인해 복합 양식의 텍스트성은 지금까지의 연구들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를 복합 양식 텍스트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어디까지를 하나의 텍스트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조차 규정하기가 어렵다. 독자와 청자, 화자와 작가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다양한 콘텐츠들로 인해 소통의 흐름을 유형화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합 양식 텍스트의 수용 장면에서는 여러 양식들이 동시에 그리고 감각적으로 인지된다는 것이다. 권순희(2003 : 43)은 활자시대의 인간은 시각적 인지를 동원하여 짜여진 순서에 따라 메시지를 파악하지만 전자 매체의 시대에는 모든 감각을 총동원하여 정보를 받아들이며 따라서 복수감각형으로 변화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과 같은 수업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6]

---

5) 예를 들면 문자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지던 신문기사도 이미지와 함께 제공되는 경향이 강해졌으며 화상 채팅, 이모티콘이 강화된 댓글 텍스트 등은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6) 이 수업은 인터넷 매체 수업으로 뉴스 텍스트와 블로그 텍스트를 각각 선택하여 읽고 본문과 댓글의 내용 파악 및 감상활동이 중심이 되었다. 학습자들은 해당 뉴스 텍스트를 한 차례 보고 댓글을 읽은 후, 이에 대한 주요 내용 파악과 감상을 활동지에 메모하고 토의를 하였다(졸고, 2009).

북한, '인공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 주장 되풀이[7]

〈앵커〉 북한은 발사된 인공위성이 우주 궤도진입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업적'이라며 관영 매체를 총동원한 대대적인 선전도 벌이고 있습니다.

…(중략)…

〈기자〉 추진체를 포함해 로켓 전체가 바다로 떨어졌다는 우리와 미국 정부의 발표와 맞물려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중략)…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 조선중앙 TV와 라디오방송들은 어제 오후 5시부터 매 시간마다 주민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선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떴소, 우주의 별나라 내 세상 됐소.]－노래

〈기자〉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도 "로켓발사 소식을 접한 북한 인민들이 환희로 들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아나운서의 보도가 나가는 동안 학습자들은 별다른 반응이 없이 지켜보았다. 중간에 북한의 중앙 통신의 인용 부분에서는 사실 여부에 대해 웅성거리기도 하였으나 곧 다시 뉴스 내용에 집중하였다. 일부 학습자들은 북한 아나운서의 독특한 말투를 흉내 내기도 하였다. 그러다가 "우리네 위성 하늘에 떴소"라는 제목의 인공위성 발사를 선전하는 북한의 영상이 나오자, 학습자들은 매우 재미있다는 반응으로 소란스러워졌다. 다음은 영상을 본 후 수업 대화 중 일부이다.

교사 : 내용 파악을 위해 한 번 더 봐야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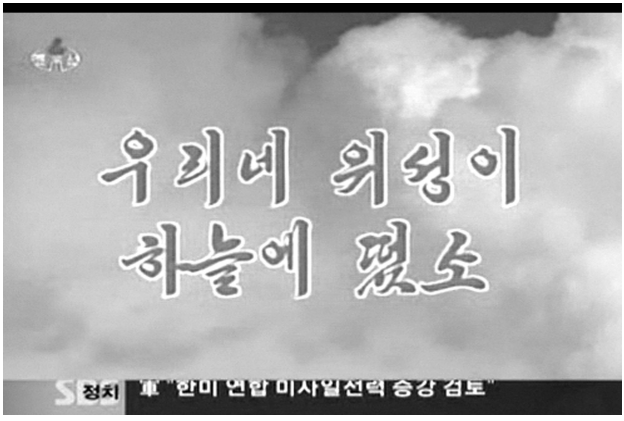
학습자들 : 아니오.(길이도 짧은 편이고 내용도 단순하여 한 번에 내용이 파악됨)

교사 : 음. 한 번에 내용 이해가 된단 말이지. 그래. 그럼 곧장 감상하고 분

7) 이 뉴스의 구성은 '앵커의 북한 주장 되풀이 사실 보도－기자의 북한 중앙통신 인용 소개－북한의 중앙통신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기자의 의혹 부분 보도－북한의 선전물 일부 인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view.html?cateid=1020&newsid=20090406080008287&p=sbsi

석해보자. 음… 뭐가 가장 인상적이었니?
학생1 : 마지막 노래요. 대박이에요.(북한 선전물의 음성 기호에 대한 반응)
학생2 : 우리네 위성이 하늘에 떴대요.(북한 선전물의 자막 기호에 대한 반응)
학생3 : 가사가 대박이에요.(북한 선전물의 자막 기호에 대한 반응)
학생4 : 오바에요. 말도 안돼요.(북한의 주장에 대한 것인지, 선전물에 대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음)
학생5 : 선전하는 게 더 오바에요.(북한의 주장에 대한 반응)

북한 선전물의 제목 자막이 나오는 순간부터 학습자들은 이전의 심각한 분위기보다는 들뜬 분위기를 보였고, 그 이후 노래가 주는 선전성과 노래 자막이 주는 메시지를 유희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때 학습자들이 기자가 말하는 뉴스의 메시지와 선전물의 시청각적 요소를 동시에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노래는 약 5~6초가량 제공되었고, 기자의 기사 내용 전달 중에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었다. 학습자들은 기자가 말하는 내용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 노래의 자막과 짧게 인용된 노래의 음악적 요소를 동시에 감각적으로 수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림 1〉 북한 선전물의 첫 화면

학생 1, 2, 3의 반응은 북한 선전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이고, 학생 4와

학생 5는 북한의 주장에 대한 반응이다. 특히 학생 2는 선전물의 제목에 대해 인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후에 북한 영상에 나왔던 사람들에 대해 그 의상이나 행동을 단발적으로 언급한 학습자들도 있었다. 이러한 반응은 북한 선전물이 마지막에 배치되었던 점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그보다는 선전물의 시작과 함께 제공되었던 화면과 그 자막도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이러한 감각적이고 동시적 감상이 뉴스의 수용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 영상에 대한 감상을 적은 학습자들의 활동지 중 일부이다.

- 가지가지 한다.. 라고 느꼈다.
- 북한이 불쌍하다. 얼마나 주장하고 싶으면 저럴까?
- 북한을 보고 귀엽다는 생각을 함.
- 참, 욕 나온다. 진짜 왜 저렇게 살까? 저런걸 보면 문화적 차이는 물론이고 정신적인 차이도 너무 다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통일을 못할 것 같다.

학습자들 중 일부는 북한에 대해 '불쌍하다', '귀엽다'는 반응을 하였는데 과연 인공위성의 발사 성공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런 반응이 촉발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약 북한의 선전물을 인용하지 않고, 기자의 말만으로 되풀이 주장을 전달했다면 그 사실에만 집중한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특히 마지막 반응의 북한의 문화적 차이나 정신적 차이에 대한 반감은 선전물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선전물 영상의 감각적 수용이 전체적인 뉴스의 감상에 직접 영향을 미친 것이다.[8]

8) 이 경우 북한의 선전물의 영상 기호가 전달하는 실체와 뉴스의 기자가 음성기호 및 자막기호를 통해 전달하려는 실체 사이의 관계를 복합적으로 분석해야만 이 복합 양식 텍스트의 비판적 이해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현선(2004 : 116)에서도 밝혔듯이, 기호와 지시대상의 관계가 무너진 현대사회 즉 기호체계의 의미가 강화된 시뮬라시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비판적 미디어 이해 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다양한 복합기호들이 각각 지시하는 대상이 다를 수 있고 그 관계를 분석적으

이러한 읽기 양상을 감안한다면 기존의 문자 텍스트 중심의 읽기 교육만으로는 그 수용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텍스트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양식들을 한꺼번에 보고 거기서 받아들인 감각적 수용이 메시지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복합적인 의미 작용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능력의 지도가 필요하다. 물론 복합 양식의 동시적 수용이 텍스트의 메시지 이해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양상을 교육적 관점에서 바라보다면 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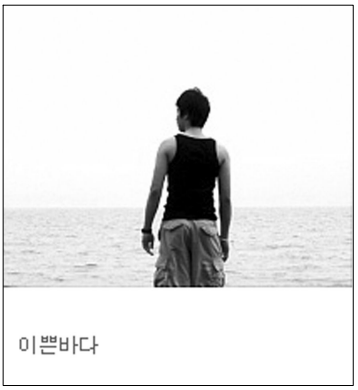
2. 쓰기 개념의 확장

인터넷 공간에서 복합 양식 텍스트 쓰기가 수월하도록 해주는 것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콘텐츠의 개발 덕분이다. 디지털 카메라의 급속한 보급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진 파일을 찍어 이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최근에는 동영상 기능이 강화되어 캠코더에 버금가는 화질의 영상 촬영도 가능하게 되었다. 이러한 매체의 보급과 활발한 매체 제작 활동은 인터넷이라는 공간과 만나서 개인이 제작한 다양한 형태의 매체 텍스트들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이때 텍스트의 단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소통의 맥락을 제거한 채, 사진 파일 하나만 놓고 인터넷 매체 텍스트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 파일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소통의 맥락에 놓인다면 그것은 비록 한 장의 사진일지라도 매체 텍스트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한 학습자의 미니홈피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9]

로 보는 이해 능력이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에서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된다.

9) http://minihp.cyworld.com/46606791/1322906128



〈그림 2〉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글

이 텍스트는 이미지 양식과 문자 양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지는 학습자 자신의 사진이며, 문자는 학습자의 느낌을 전달하고 있다. 학습자의 시선은 바다를 보고 있으며 따라서 사진에서 전달하려는 메시지도 바다에 대한 느낌이다. 그런데 여기에 수용자들이 생성한 의미는 의도와는 다른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 ㅋㅋ 오~분위기 ㅋㅋㅋㅋㅋ바다이쁘당 (2008.07.13 17:28)
: 우왕 (2008.07.13 20:11)
: 멋있다..바다 (2008.07.13 20:11)
: ^ㅜ^ㅋㅋㅋㅋㅋ (2008.07.13 20:11)
: 부럽다 바다...가고싶네... ㅋㅋㅊㅅ (2008.07.13 21:23)
: 퍼가요~♡ (2008.07.13 21:23)
: 분위기 쩔!!ㅋㅋ (2008.07.13 21:38)
: 열우등짱임 아무나못소화하는저옷을입은정도 (2008.07.13 21:38)
: 정정 : ㅋㅋㅋㅋ...자신감쵝오 근육남ㅁㅁㅁㅁ*** (2008.07.13 21:57)

: 어디서 분위길잡어 ㅋㅋㅋ (2008.07.13 22:27)
: 응? 바다보는데 찍은건데? (2008.07.13 22:37)
: ㅋㅋ 의도샷! (2008.07.13 22:41)
: 의도는 아니야이건;; (2008.07.13 22:47)
: 뒷태~!ㅋㅋㅋ 여튼뭔가 분위기이씀ㅋㅋ (2008.07.13 22:48)
: 오~~ 역시 쎈케 ㅋㅋㅋㅋㅋ (2008.07.13 22:53)
: 어우 열라 섹시하다 열우야 (2008.07.13 22:56)
: 하악하악.. (2008.07.13 22:57)
: 와우~~멋져 ㅋㅋㅋ (2008.07.13 23:07)
: 바다 부럽군 ㄷ; (2008.07.13 23:09)
: ㅋㅋ언제바닷가갔냐? ㅋ (2008.07.13 23:33)
: 운동열심히해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08.07.14 15:52)
: 멋잇는 열우인데 ㅋㅋ (2008.07.14 21:23)
: 헉 (2008.07.14 22:33)
: 헐 분위기 짱이당 (2008.07.14 23:45)

〈그림 3〉 '그림 2'의 댓글들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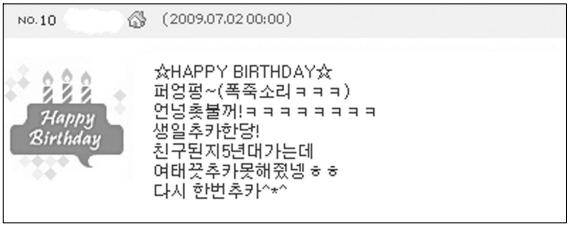
하나의 텍스트가 형성하는 의미가 다양해질 수 있는 것이 인터넷 공간이다. 특히 이미지를 중심으로 한 텍스트는 그 이야기 형성이 전적으로 수용자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글쓴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바다에 초점이 있었다. 처음에 쓰인 댓글들은 이러한 의도를 잘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간에 이어지는 댓글들은 그 의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진 속 인물에 대해 평가를 하기도 하고, 사진의 조작에 대한 의심이나 운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한다. 이처럼 댓글 소통 속에서 사진은 새로운 이야기로 소통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학습자들의 일기 중에 나타난 사례이다. <그림 4>는 자신의 감정을 간단하게 토로하면서 복잡한 심정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한 이미지를 첨부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유희적 성격보다는 심정을 압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하겠다. 다만 여기에서 일어난 댓글 소통은 이러한 일기 내용과는 관련 없는 내용들이다. 이는 최근 학습자들 사이에서는 미니홈피의 일기가 자기 투사의 한 방법인 측면보다는 대화를 나누는 공간의 일부로 더 많이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일기에 나타난 복합 기호(2)

여기에 사용된 이미지는 출처를 밝히지 않은 어디선가 복제해 온 것이다. 복제할 당시의 이미지가 가지는 맥락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나 원본의 맥락과 이 텍스트에서의 맥락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미지의 복제와 재생산은 자기 투사의 글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보 전달의 글과 친교를 위한 글 등에서도 대부분 복제해 온 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고 있다. 정보 전달의 글은 사진, 영상, 그래프나 그림 등을 인용하여 정보를 강화하고 있다. 친교를 위한 글에서는 이모티콘이나 아바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여러 곳에서 소위 '퍼온' 사진이나 영상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은 아바타와 이모티콘을 사용한 방명록의 사례이다.



〈그림 5〉 방명록의 복합 기호(2)

여기에는 생일을 축하하려는 목적에 적합한 이미지를 아바타로 선택하고 간단한 이모티콘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많은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유희적 성격의 'ㅋㅋㅋ'와 웃는 모양의 '^*^'를 사용하여 즐거운 심정과 축하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여기에 문법 파괴 양상에 주목해 볼 수도 있으나 우선 아바타와 이모티콘이 친교적 소통에 사용되고 있는 경향에 더 초점을 맞추어 보았다.

이처럼 학습자들의 글에는 이미 여러 종류의 복합 양식 텍스트들이 사용되고 있다. 바로 여기서 쓰기와 쓰기 능력의 개념이 확장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문자 언어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쓰기 개념에 복합 양식 기호의 쓰기도 포함시켜야 한다.[10] 다만 복합 양식 기호를 제작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작은 쓰기 개념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동영상을 찍고 편집한다든가,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나가 사진을 찍는 등의 행위 자체를 쓰기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렇게 제작된 영상이나 사진을 텍스트의 맥락 내에서 소통시킬 때, 이런 소통 행위는 쓰기 영역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지점이 복합 양식 텍스트의 쓰기 교육적 의미를 갖는 부분이 된다. 복합 양식 기호들을 포함한 다양한 기호들이 소통의 맥락에서 의미 작용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을 쓰기라고 한다면 쓰기 능력은 다양한 기호들의 의미 작용이 소통의 맥락에서 의도한 바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읽기 및 쓰기의 통합 지도 전략

1. 심화 읽기와 심층적 반응

1) 감각적 반응으로부터 출발한 심화

복합 양식 텍스트의 동시적이고 감각적 수용 양상은 읽기의 유희성을 증대시키고 생동감 있는 수용 작용을 불러일으키지만, 반면에 메시지의 본래 의미를 놓치거나 혹은 외연적 의미 해석에 치중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여러 기호들이 지시하는 실체가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의미 구성에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의미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때 복합 양식 텍스트의 역동적 의미 작용을 수용하여 그 내포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읽기 지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각적 읽기에서 벗어나 심화 읽기를 할 수 있어야

10) 윤여탁 외(2008 : 102)에서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글쓰기는 '기록한다'는 의미가 더 가까우며 사진이나 영상들이 자유롭게 결합하면서 이 '기록'은 더 생동감있게 발전한다고 하였다. 즉 다양한 감각 기호들의 결합을 쓰기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심화 읽기는 비판적 읽기와 맥락을 같이 하여 외연적 의미, 내포적 의미, 이데올로기적 의미 해석을 하며 읽는 것을 말한다.[11] 그러나 여기에는 복합 양식 텍스트에 사용된 복합 기호들의 의미 작용에 대한 의미 해석이 있어야 하므로 문자나 음성의 단일 텍스트의 분석과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된다. 앞서 보았듯이 어떤 이미지 기호가 지시하는 실체가 전체 텍스트의 의도와 달리 의미 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든가, 또는 어떤 이미지 기호의 내포적 의미가 문자 기호와 결합하여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창출한다든가, 혹은 음성 기호에서 드러나는 비언어적 요소들이 이미지 기호와 결합하여 어떠한 의미 작용을 일으키는지 파악한다든지 하는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일 양식의 텍스트보다 분석 양상이 복잡해진다.[12]

따라서 복합 양식 텍스트의 심화 읽기는 여러 양식 기호들이 가지는 각각의 의미를 감각적으로 이해함과 함께 이들의 상호 작용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의미 작용까지도 읽어내면서 내포된 의미와 이데올로기적 의미까지 읽어내는 것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즉각적이고 감각적으로

---

11) 텍스트의 비판적 분석과 평가의 방법은 마스터만(Masterman, 1980 : 10 ; 정현선, 2007 : 5에서 재인용)의 외연적 의미 기술 단계, 내포적 의미 해석 단계, 이데올로기적 의미 해석 단계는 매우 유용하다1). 외연적 의미 기술은 물론 있는 그대로 의미를 이해하고 묘사, 기술하는 단계이므로 앞서 텍스트의 수용 과정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내포적 의미 해석은 자유로운 연상 방식의 열린 질문들을 통하여 해당 텍스트의 의미를 좀 더 명료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인터넷 매체 텍스트에서는 복합 양식의 내포적 의미나 선택이 가지는 결과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하여 명료화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마지막 단계인 이데올로기적 의미 해석 단계는 내포적 의미 해석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들을 통하여 텍스트의 기호가 가지는 함축적 의미 전체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 세 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마지막 단계인 이데올로기적 의미 해석 단계이다. 그러나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포적 의미 해석을 위한 질문과 답변들이 사실은 어떤 교두보의 역할을 해주는가가 결정적이다.

12) 권순희(2006 : 349)는 영상이 언어 메시지를 보완하고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언어 메시지와 동일한 위치에 나타나기도 하며 때로는 언어 표현이 불필요할 정도로 강력한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음향 기호도 언어적 표현보다 더 큰 설득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광고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복합적인 기호들의 상호 작용에 따른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가온 외연적 의미로부터 실마리를 풀어나가며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대한 전략적 지도가 필요한 것이다.

수업 사례 중 UCC 한 편을 감상하고 이에 대해 토의를 한 경우가 있다. 이때 UCC의 제목은 '하루에 1억을 써도 남아'[13]라는 것이었다. 영상과 댓글을 읽은 후, 어떤 점이 재미있었는가,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댓글과 초기화면은 어떠했는가 등을 토의하면서 의미를 분석하였다. 이때 학습자들은 복합 기호의 의미 작용을 분석함에 있어서 이미지 기호와 제목의 복합 작용을 토의를 통하여 분석해낼 수 있었다. 이때 메인 화면에 소개된 대표 이미지는 가수 '보아'의 사진이었으나 정작 하루에 1억을 써도 남는 주인공은 배우 '배용준'이었으며 원 텍스트의 초기 이미지도 '배용준'의 인터뷰 모습이었다. 또한 제목도 초기 화면에서는 '하루에 1억을 써도 남아'라고 하였지만 원 텍스트는 '한해 연봉 킹왕짱은?'이라는 제목이었다.

[그림 24] 메인 화면의 제목과 이미지

원 텍스트에서는 '배용준'이라는 배우의 연봉이 제일 높다는 의도를 가진 이미지와 제목이 결합하여 연봉의 서열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메인 화면에서는 '보아'의 환상적 이미지를 가진 사진과 함께 하루에 1억을 써도 남는다는 자극적 제목이 어우러져 실제 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호

13) 초기 화면에 소개된 것은 '하루에 1억을 써도 남아'였으나 실제 영상 제목은 '한해 연봉 킹왕짱은?'이었다.
http://tvpot.daum.net/clip/ClipView.do?clipid=10351793&focus=28&range=2&diff=7&ref=best&lu=b_month_28

기심 자극이라는 내포적 의미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의미 작용에 대해 일부 학습자는 그 의미 작용을 찾아내지 못하였으나 토의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14] 다음은 수업 시간 중 활동지에 학습자들이 쓴 의도 분석 활동이다.

- 메인 사진은 보아였고 보여진 제목은 '하루에 1억 써도 남아'라고 해서 나는 보아의 연봉에 대한 내용인줄 알았는데 그것은 일부분의 내용이었고, 하루에 1억 써도 남는다는 사람은 보아가 아니였고 배용준이였다. 왜냐면 사람들에게 호기심과 관심을 높이기 위해
- 처음에 하루에 1억을 써도 남아라는 제목과 스타의 사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스타들의 돈버는 것과 생활에서 돈씀이를 보는 것인가 했는데, 스타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의 사람들의 연봉을 잘버는 순서로 랭킹을 정한 것이었다. 내세우는 표면적인게 한 단편만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닐가 싶다.

이러한 비판적 분석의 토대에는 이미지와 제목의 의미 작용을 이해하고 그들이 결합하여 빚어낸 복합적 의미 작용을 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감각적 읽기에 대한 심화 읽기를 위한 토의 과정은 비판적 읽기의 기본이 되는 활동이다.

2) 심화 읽기를 심층적 반응 표현으로

이처럼 동시적이고 감각적인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읽기를 심화 읽기로 바꾸어 그 양식들 사이의 복합적 의미 작용까지 이해하고 이를 이데올로기적 의미 분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매주 중요하다. 그리고 이때 이러한 분석을 돕는 댓글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위의 수

14) 이러한 토의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학습은 비고츠키의 근접발달이론에 따라 설명될 수 있다. 학습자들의 토의 내용은 이미지와 문자 등의 기호작용 속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의미 작용을 짚어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이에 교사의 토의 참여와 유도 발문의 역할도 컸으며, 이러한 학습에 따른 의미 파악은 학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업 사례에서 "낚였음"과 같은 댓글이 가지는 의미를 추리해 본다든지, "마지막 행성 대박.. 이건희 쪼그마하게 있다가 바로 사라지는 센스 ㅋㅋㅋ"가 의미하는 것이 이미지의 유희성 외에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가 등을 분석해볼 수 있다.

이렇게 토의를 통해 분석하게 된 심화 읽기의 내용을 그대로 토의를 각자 정리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다. 다만 그럴 경우 심화 읽기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의미 작용이 다음으로 이어질 재생산 텍스트 쓰기에서 역동적으로 작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토의는 말하기와 듣기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의의 과정에서 나온 다양한 의미 작용들이 모두 학습자들의 의미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 학습자들이 생각한 심화 읽기의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와 의미 구성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인터넷 게시판이나 댓글을 통하여 심층적 반응 표현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15] 즉 심화 읽기를 위한 토의에서 찾은 다양한 의미 작용들 중에서 한두 가지를 선택하여 이를 게시판이나 댓글로 작성함으로서 인터넷 공론장에도 참여하고[16] 재생산 텍스트 쓰기를 위한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심층적 반응의 글쓰기를 통해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 태도에 대한 성찰도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심화 읽기에 따른 심층적 반응 표현은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에서 중요한 마무리 단계 활동이 된다.

특히 댓글 공간을 활용한 심층적 반응 표현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교육적 의의를 가질 수 있다.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그 텍스트가 놓여있

15)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것은 학생들에게 글쓰기가 사회적 행위라는 의미를 추상적인 개념으로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분명히 느낄 수 있게 하는 효과가 있다(김정자, 2003 : 145).

16) 인터넷 공간에서의 공론장이란 하버마스가 주장한 신분에 따른 특권 의식이 작용하지 않으며 누구나 참여하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성역이 존재하지 않는 공간과 일치하는 성격을 가진다(Habermas, 1962 ; 김익현, 2008 : 31에서 재인용). 하버마스는 공론장의 개념을 통해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실현하고자 하였는데 바로 인터넷의 공론장은 오늘날 그 이상적인 공론장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 특히 인터넷 공간에서의 읽기는 즉흥적 반응 표출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하지만 사회적 참여나 소통의 공유가 이루어지기 쉽다는 장점도 있으므로 이는 중요한 공론장의 가능성을 갖는다(졸고, 2009 : 117).

는 공간에서 다양한 댓글들의 맥락 속에 자신의 심층적 반응을 표현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매체언어 교육의 중요한 활동이 된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댓글 쓰기는 자기 표현의 한 방법이며 이는 해당 글에 대한 반론, 자기 생각 등을 표현하려는 욕구가 강하게 작용한 활동이다.[17] 따라서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그에 대해 심층적 반응을 댓글로 표현하는 것은 학습자들이 분석한 텍스트의 의미를 스스로 표현하여 심층적 반응을 드러내기에 적합한 활동이 될 것이다.

특히 그동안 학습자들의 댓글 쓰기 실태는 대부분 즉흥적 반응 표출이 대부분이었음을 감안한다면 댓글 쓰기에 대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때 댓글 쓰기에 대해 심층적 반응을 쓰도록 안내하고 직접 그러한 표현 활동을 함으로써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의 표출에 그치던 댓글 쓰기 습관에 대한 메타적 교육 효과도 얻을 수 있다.

2. 재생산 텍스트 쓰기

1) 심층적 반응을 활용한 재생산 텍스트 쓰기

앞서 수업 시간에 관찰된 학습자들의 인터넷 글쓰기는 복제하기, 편집하기, 재생산하기, 하이브리드적 창조하기, 창작하기 등의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복제하기의 경우 온전한 하나의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쓰기 활동이라고 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편집하기는 하나 이상의 텍스트를 자신의 목적이나 필요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복제와는 구분해야 한다. 편집만으로도 원 텍스트와는 다른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편집은 인터넷 매체 텍스트의 쓰기 활동에서 중

17) 김채환(2009 : 34)은 인터넷 뉴스 댓글의 이용 욕구를 정보성, 표현성, 흥미성, 휴식성으로 보고 특히 댓글 이용의 동기에 자기 표현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조사 연구를 통해 주장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인터넷 댓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특히 해당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의견을 밝힘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의 상호작용성에 만족감을 느낀다는 점을 설명하는 연구이다.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재생산하기는 편집과 달리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 속에 필요한 자료들을 발췌하여 인용한 것이다. 물론 편집 텍스트 속에서도 앞이나 뒤에 글쓴이의 목적과 소감 등을 덧붙이기도 하지만 재생산 텍스트는 원 텍스트에 대한 편집을 뛰어 넘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맞추어 자료들을 수집하고 가공하였기 때문에 편집과 구별짓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다음의 두 글은 똑같이 연예인에 대한 소재를 선택한 것이다. 비교해 보면 B학급-글 (4)가 단순히 그룹의 소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에 비해 A학급-글 (1)는 배우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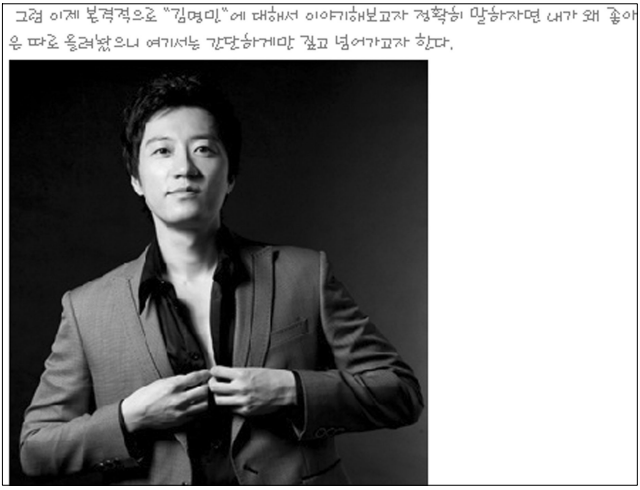
> 빅뱅의 뜻은 원래는 과학용어로 우주를 탄생시킨 대폭발이란 의미이다. 또 다른 빅뱅의 뜻으로 '가요계의 대폭발'이라고 의미를 바꾸어 양현석 사장은 빅뱅이라고 그룹 이름을 결정짓고 데뷔시켰다.
>
> B학급-글 (4)-도입부

> 내가 직접 글을 올린 적이 없어서 타자 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떨린다. 뭐 글 하나 올리는데 무슨 호들갑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어쩌랴. 처음인 것을. 그리고 그 주제가 김명민인 것을! 요즘 컴퓨터 앞에 앉으면 내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네에버 메인에 베토벤 바이러스가 있나 없나를 살펴보는 일이다.
>
> A학급-글 (1)-도입부

특히 B학급-글(4)의 도입부는 '네이버' 사이트의 '빅뱅' 인물 사전에 소개된 것을 편집해 온 것이다. 따라서 글을 쓴 학습자의 생각은 알 수가 없다. 물론 뒤이어 학습자가 일부 가수의 사진과 함께 이 그룹에 대해 소개한 내용들로부터 글쓴이가 그룹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었다.

반면 A학급-글(1)의 도입부는 글을 쓰고 있는 학습자의 현재 심정과 배우에 대한 태도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글은 중간에 배우의 프로필과 다른 블로거들의 글 등을 인용하기도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자신의 의도대로 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중간에 배우의 사진을 자신의 의도에 부합

되게 배치하고 있다.



〈그림 7〉 A학급-글(1)의 일부

이 글에서 처음 배우를 소개하는 부분에서는 깔끔한 이미지의 사진을, 배우의 연기 실력에 대해 극찬할 때는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을 선택하여 제시하였다. 이는 사진을 단순히 복제해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글 맥락에 맞게 재생산한 것이다. 따라서 이미지가 가지는 의미 작용은 앞뒤의 글 맥락과 함께 새로운 메시지로 전달된다.

바로 여기에서 앞에서 다룬 심층적 반응을 쓴 댓글과 함께 복합 양식 텍스트의 재생산하기로 이어진다면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지도 전략으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즉 심층적 분석 내용을 반영한 재생산 텍스트 쓰기를 하는 것이다. 임천택(2002 : 447)은 하이퍼텍스트 환경에서 생성하기가 용이한 이유가 다양한 자료를 아이디어 생성의 단서로 삼을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공간이 아이디어 생성의 단서를 넘어서 글의 주제와 내용 자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본다. 따라서 앞서 표현한 심층적 반응들을 주제 및 내용으로 삼아 원 텍스트의 이미지와 영상들을 재료로 삼아 재생산 텍스트 쓰기 활동

을 하는 것이다.

2) 유희적 변환성을 활용한 재생산 텍스트 쓰기

인터넷 매체 텍스트는 디지털 기호로 이루어져있다. 디지털 기호는 텍스트의 해체와 결합을 쉽게 하고 이는 텍스트의 변환성을 증대시킨다. 물론 변환성은 인터넷 매체가 생기기 전에도 이미 존재하던 텍스트성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패러디'라고 하여 그림이나 시, 영화 등의 여러 장르의 텍스트에서 이 변환성의 개념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언어의 디지털 기호는 이 변환성을 용이하게 하고 복합 양식화한다. 그리고 네트워크성으로 인하여 변환 텍스트의 소통이 증폭되고 이러한 활발한 소통은 변환 텍스트를 확대 재생산하고 이는 유희적 소통으로 이어지게 된다.[18]

변환성과 유희성은 디지털 기호에서부터 파생된 중요한 특성이며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함께 비판 능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해진다. 따라서 무한 복제, 재생산, 변형이 가능한 인터넷 매체 텍스트를 읽을 때는 원 텍스트인지, 복제 혹은 변형 텍스트인지가 신뢰도 평가에서 중요하다. 또한 복제된 텍스트라면 원 출처는 무엇인지, 변형 텍스트라면 어떤 부분을 왜 변형한 것인지 등도 텍스트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표절과 창조의 의미를 새롭게 바라볼 필요가 생긴다. 인터넷 공간에서의 창조는 재창조를 포함한다.[19]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

---

18) 최예정 · 김성룡(2005 : 49~59)에서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특성 중 하나로 '재미'를 추구하는 유희성과 그 대표적 생산소비 활동으로 패러디 장르를 들고 있다. 이는 디지털의 변환성에 힘입은 기호적 특성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네트워크성 덕분에 생겨난 것이다. 즉 디지털 기호로 이루어진 텍스트는 얼마든지 변형이 가능하며 이렇게 유희의 목적으로 변형된 텍스트는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활발하게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 일례로 방송 드라마의 게시판에 흔히 등장하는 패러디들을 들 수 있다.

19) 권순희(2003)는 하이퍼텍스트 읽기 교육에는 비판적 사고 능력의 신장 차원을 넘는 재창조의 사고 능력의 신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이를 하이브리드적 사고 즉 종합적 재창조의 사고라고 하였다. 권순희(2003)에서는 비록 읽기 영역에서 이루어졌으나 이는 읽기와 쓰기를 통합한 것이며 특히 하이브리드적 사고로 재창조한 부분은 쓰기의 영역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것에 대한 판단과 통찰을 통하여 새로운 것은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때 현재 있는 것으로부터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표절과 창조의 경계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어디까지를 표절이라고 할지 어디서부터 새로운 것이라고 할지의 구분이 모호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이 재생산하게 되는 텍스트가 표절 텍스트가 아니라 학습자들의 심층적 분석을 담고 있는 하이브리드적 텍스트라고 본다. 당연히 원 텍스트의 이미지와 그 내용을 활용할 것이지만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는 학습자들의 분석 내용이 들어간 변환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 속에는 학습자들의 토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텍스트의 해체와 그 과정에서의 유희적 분석이 반영될 것이다. 이러한 유희적 변환성은 새로운 의미 작용을 불러와 재생산 텍스트의 창조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심층적 반응의 댓글에 사용된 텍스트를 그대로 복제해 오는 것보다는 자신의 의도에 맞도록 재가공하여 사용하는 것이 더 재생산의 의도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원 텍스트에 사용된 이미지를 캡처해 오거나 영상을 편집해 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이미지의 일부에 자신의 의도가 담긴 편집을 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연봉 관련 UCC 중 '백억'이라는 이름의 강아지 사진이 위트 있게 제시되어 있었는데 이 사진을 가져와 '백억'이라는 이름을 '백원만'으로 바꾸어 새로운 의미 작용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편집이나 재가공은 학습자가 재생산하여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시도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복합 양식 텍스트의 생산이 제작의 난관으로 인해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UCC에 대한 심층적 반응 후 재생산을 시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UCC를 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기왕이면 같은 영상을 재생산하는 것도 좋겠으나 이미지와 문자로 이루어진 텍스트도 재생산의 의미 전달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굳이 제작 여건이나

조금 더 가깝다 하겠다.

환경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Ⅳ. 나가며

지금까지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되는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양상을 살피고, 그에 따른 통합적 지도 전략을 살펴보았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것이 복합 양식 텍스트의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시적이고 감각적인 수용을 심화 읽기와 심층적 댓글 쓰기로 이어지도록 지도하고, 쓰기 개념을 확장시켜 이미지나 영상을 텍스트에 가져와 재생산하기를 하도록 지도하는 것은 분명 효과적인 지도 전략일 것이다.

복합 양식 텍스트를 잘 읽고 쓰는 능력은 인터넷 공간에서 소통하는 학습자들에게 꼭 필요한 능력이다. 다양한 복합 양식들의 의미 작용을 분석하여 심화된 읽기를 하고 이를 댓글 소통에 표현할 수 있다면 즉흥적인 감각적인 반응 표출이 주류를 이루는 댓글 소통에 보다 수준 높은 소통 문화를 이룰 수 있다. 또한 여러 심층적 분석을 자신의 것으로 내면화하여 이를 토대로 재생산하기를 통하여 쓰기를 해보는 것은 복합 양식 텍스트 쓰기 능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복합 양식 텍스트를 모두 대상으로 하지 않았으며, 그 소통 양상에서 발견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모두 고려한 것은 아니므로 이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통합적 지도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켜 보다 정확한 활동으로 연계시켜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현장 연구를 통하여 보다 다양한 수업 사례를 수집 연구해야 할 과제로 남겨둔다.*

* 본 논문은 2009. 10. 29. 투고되었으며, 2009. 11. 12. 심사가 시작되어 2009. 11. 28. 심사가 종료되었음.

▣ 참고문헌

권순희(2003), "인터넷 신문의 리플 텍스트에 나타난 수용자 반응 분석", 『국어교육』 111, 231-257, 국어교육학회.

권순희(2006), "텔레비전 광고 텍스트 분석을 통한 비평적 이해 교육", 『교과교육학연구』 10(2), 343-359, 교과교육연구회.

김익현 (2008), 뉴스 공론장으로서의 블로그의 가능성 연구 : 대화의 복원이란 관점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정자(2003), "전자게시판 글쓰기에 대한 연구", 『국어교육연구』 11, 103-151, 서울대 사범대 국어교육연구소.

김채환(2009), "인터넷 뉴스 댓글의 이용과 상호작용성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9, 5-44, 한국지역언론학회.

윤여탁 외(2008), 『매체언어와 국어교육』, 서울대학교출판부.

임천택(2002), "작문 교육을 위한 하이퍼텍스트 기반의 작문 공간 모형 설계 방안", 『국어교육학연구』 15, 435-477, 국어교육학회.

정재찬(2006), "현대시 교육의 방향", 『문학교육학』 19, 387-409, 한국문학교육학회.

정현선(2005), "기호와 소통으로서의 언어관에 따른 매체언어교육의 목표에 관한 고찰", 『국어교육연구』 19, 97-138, 국어교육학회.

정현선(2007),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성희(2009), 인터넷 매체언어의 읽기와 쓰기 특성과 효과적 통합 지도 전략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미숙(2006), "디지털 시대, 시 향유 방식과 시 교육의 방향", 『국어교육연구』 19, 69-96, 국어교육학회.

최예정 · 김성룡 공저(2005),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Burn, A, & Leach, J.(2004), "ICT and moving image literacy in English", *The Impact of ICT on Literacy Education*, ed. R. Andrews, London and New York : Routledge Falmer.

Habermas, J(1962), *Strukturwandel der Offentlicheit*, Frankfurt/M ; 한승완 옮김(2001), 『공론장의 구조 변동』, 서울 : 나남.

Marsterman, L.(1980), *Teaching about Telecision*, London & Basingstock : The Macmillan Press.

<초록>

인터넷 매체 텍스트의 읽기와 쓰기 통합 지도 전략

—복합 양식 텍스트를 중심으로—

김성희

인터넷 공간에서 읽게 되는 텍스트는 복합 양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쓰는 것은 기존의 읽기 및 쓰기와 많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간에서 복합 양식 텍스트를 읽고 쓰는 과정에는 어떤 특성들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를 지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를 규명해야 한다.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읽기는 동시적이고 감각적인 수용 양상을 보인다. 이때 동시적·감각적 수용은 메시지의 전체 이해에 영향을 주어 잘못된 수용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화적 읽기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복합 양식 텍스트 쓰기의 보편화는 쓰기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여 복합 양식 기호의 쓰기를 포함시키게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 기호의 쓰기 능력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읽기와 쓰기의 통합적 지도 전략으로 감각적 수용에 대한 심층적 읽기와 복합 양식 텍스트의 재생산하기를 제시하고자 한다. 심층적 읽기는 즉흥적이고 감각적인 반응을 심화된 읽기로 이끌어 낸다. 이러한 심층적 읽기 반응을 토대로 텍스트의 재생산하면서 복합 기호의 메시지 전달을 이해하여 적절히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통합 지도를 통하여 복합 양식 텍스트의 심층적 수용과 표현 능력이 신장될 수 있다.

【핵심어】 복합 양식 텍스트, 통합 지도, 매체언어 교육

<Abstract>

Integrated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Reading and Writing Internet Media Texts

—With a focus on multi-mode texts—

Kim, Sung-hee

In many cases, texts that are read in the Internet are in multiple mode, and there lie many differences between reading and writing multi-mode texts and conventional reading and writing. Thus it's necessary to identify what kind of strategies would be need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eading and writing multi-mode texts and to teach them. Reading multi-mode texts involves simultaneous and sensory acceptance, which affects the entire message and presents a risk for wrong acceptance. That's why advanced reading instructions are in need. And the generalization of writing multi-mode texts requires concept expansion and includes writing of multi-mode signs, which suggests a need for the ability to write such multi-mode signs.

This study set out to present in-depth reading of sensory acceptance and reproduction of multi-mode texts as integrated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reading and writing. In-depth reading induces impromptu and sensory reactions as advanced reading. One can understand and express properly the message delivery of multiple signs by reproducing texts based on in-depth reading reactions. Such integrated instructions can help with in-depth acceptance and expressive abilities of multi-mode texts.

【Key words】 multi-mode texts, integrated instruction, education of media language